



김원섭

“지도자로 한 방 터트리겠습니다”

아쉬운 작별을 뒤로하고 김원섭이 '김감독'으로 새 출발 한다.

KIA 타이거즈의 전력 분석원으로 활동했던 '명품다리' 김원섭이 5일 광주 서구 광천동에 '김원섭 베이스볼 아카데미'를 열고 지도자로 변신한다.

김원섭은 “내가 잘하는 선수였다면 (폼, 훈련 방식 등) 많은 시도를 안 했을 것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선수 시절에 여러 시도를 해봤다”며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게 (전력분석원으로 뛰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하지만 감독님, 타격 코치님도 계시고 하니 원포인트로 잠깐 가르치는 정도였다. 이제는 내가 여기 오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내가 해왔던 것을 최대한 많은 시간 할애해서 가르쳐 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직접 레슨을 하느냐, 계속 자리에 있느냐고 물어 보시는 분이 많은데 내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항상 나와 있고, 레슨도 다 맡아서 진행할 생각이다”며 “사회인 야구분들은 정말 야구가 좋아서 하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재미있게 하려고 한다. 정말 욕심 많은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엘리트 선수처럼 알려드리고 싶다. 엘리트 학생인 경우 미래가 달린 거니까 최대한 신경 써서 알려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새로운 출발에 가슴은 떨리지만 마음 한 곳에 진한 아쉬움도 남아있다.

2001년 두산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던 그는 2003년 트레이드를 통해 '타이거즈맨'이 됐다.

만성 간염과 싸우면서도 그라운드를 중흥무진 달렸던 김원섭은 결정적인 순간 여러차례 주인공이 되며

광천동에 '베이스볼 아카데미' 연 김원섭

지난해까지 KIA 전력 분석원 활동

유소년·사회인 야구 지도로 새출발

17년간 근면·성실...후배들에 귀감

“2017년 은퇴 경기 못 해 아쉬워”

KIA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17시즌 중반 은퇴를 결정한 그는 팀이 시즌 마지막날까지 1위 싸움을 하는 바람에 은퇴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조용히 팬들과 작별을 하게 됐다. 또 지난 시즌을 끝으로 KIA와 전력 분석원으로 계약이 종료되면서 다시 작별의 순간을 맞았다.

김원섭은 “마지막 날 정말 은퇴 경기를 하고 싶었다.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나를 응원해주신 팬들 앞에서 한 타석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팀 상황이 안됐다. 타이프한 상황이 계속 흘러가니까 한 경기를 한다고 욕심을 낼 수 없었다. 팀이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구를 했었다”며 “아쉽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KIA에서 코치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새 출발을 이야기했다.

“성실했던, 빛나지는 않았지만 자기 역할을 해줬던

선수'로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김원섭이지만 그라운드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순간도 많았다.

2009년 8월 9일 군산에서 열린 SK와의 홈경기에서 김원섭은 2-3으로 뒤진 9회말 2사에서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을 터트리며 조명을 받았다. 이 해 KIA (승률 0.609)는 시즌 막판 19연승을 달린 SK (승률 0.602)를 간신히 따돌리고 정규시즌 1위를 확정했다. 김원섭의 극적이었던 홈런은 KIA를 한국시리즈 직행으로 이끈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그는 또 4-5로 뒤지던 2009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동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의 발판을 놓기도 했다. 1000경기 출장날이었던 2015년 7월 28일 SK와의 홈경기에서는 끝내기 스리런을 날리며 극적인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원섭은 “공교롭게도 세 경기 모두 같은 투수였다. (정우람에게) 자신감이 있었다. 무조건 칠 것 같았다. 타이밍이 맞는 투수가 있는데 폼이 예쁘고 깔끔한 투수와 잘 맞았다”며 “좋은 순간이 기억 남지만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신인이었던 2001년 시범경기에서 내내 경기를 잘하다가 마지막날 중간 교체해서 들어갔는데 많은 관중 앞에서 긴장해서 온갖 실수를 했었다. 이 경기로 개막 엔트리에서 빠지게 됐다. 경기장 구석에서 울던 생각이 난다”고 돌아봤다.

그라운드에서 사람들을 울고 울렸던 김원섭. KIA에서의 희로애락을 뒤로하고 새로운 무대에 선 김원섭의 또 다른 야구가 시작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잠시 토트넘 떠나 미안 아시안컵, 조국에 중요한 일”

손흥민, EPL 동료·팬들에 인사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잠시 소속팀을 떠나야 하는 손흥민(토트넘)이 팀 동료와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3일(한국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손흥민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팀을 떠났는데 또 가게 돼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들, 팬들, 그리고 코치진에게 미안하다. 어려운 일이었다”며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대표팀에서도, 토트넘에 돌아올 때도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을 오가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느라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11월 짧은 휴식을 거친 후야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했고 11월 말부터 무서운 기세로 득점을 뽑아내고

있다. 이를 지켜본 토트넘 팬들은 아시안컵 이후 손흥민의 컨디션이 또다시 저하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손흥민은 “아시안게임 때는 2~3일에 한 번씩 경기 해서 피곤했다”며 “아시안컵에서 정신적으로 올바른 상태를 유지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채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1월의 휴식이 자신에게 ‘타닝 포인트’였다고 “이동하지 않고 며칠을 쉬는 팀과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그렇지만 아시안컵은 우리에게 큰 대회다. 59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손흥민은 오는 13일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팀을 잠시 떠나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대표팀에 합류한다.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까지 간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경기를 최대 5경기까지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첫 강등’ 전남 드래곤즈, 외국인 감독

브라질 출신 파비아노 감독 선임

전남 드래곤즈가 구단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을 앞세워 승격 도전에 나선다.

전남은 2017시즌 브라질 1부 리그 아틀레치쿠 파라나엔시를 맡았던 파비아노 수아레즈 페소사를 지난 2일 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지난 시즌 1부리그 최하위가 되며 강등 수모를 겪은 전남은 구단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파비아노 수아레즈는 앞서 2011년부터 몸담은 포르투갈의 이스토틸에서 수석코치로 팀을 1부 리그로 이끌었다.

당시 감독이었던 마르코 실바(현 에버튼 감독)가 팀을 떠난 뒤에는 이스토틸의 감독직을 이어받아 60경기 이상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전남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한 경험과 현재 K리그 외국인 선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선수에 대한 파악이 용이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파비아노 수아레즈 감독은 브라질 출신으



로 스페인 국적을 가졌으며 2004년 현역 은퇴 이후 스페인에서 유소년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4부 리그 감독부터 1부 리그 감독까지 경험하며 착실하게 지도자 경력을 쌓아왔다.

또한 이스토틸 감독으로 재임하던 2016시즌에는 이탈의 감독을 3번이나 차지하는 등 포르투갈 내에서도 능력이 검증된 감독이다.

한편 전남은 파비아노 수아레즈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출 국내 코칭스텝과 외국인 피지컬코치도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해 2019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안 빅리거들 ‘프리미어 12’서 뭉칠까

내년 도쿄 올림픽 본선 진출권 걸려

류현진·오승환·추신수 합류 관심

올해 11월에 열리는 세계 12개 야구 최강국 결정전인 제2회 프리미어 12에서 코리안 빅리거들이 태극마크를 달지 관심이 쏠린다.

프리미어 12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 2장이 걸렸다.

올림픽 개최국 일본이 본선에 자동 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프리미어 12에서 대만, 호주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최상위 팀 자격으로 올림픽 본선 티켓을 거머쥔다. 당연히 포지션별 최고 선수로 대표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오승환(콜로라도 로키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등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당연히 등장한다.

올림픽이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일정이 한창인 2020년 7월 24~8월 9일에 열리기에 각 팀 25인 로스터를 포함한 40인 로스터에 든 빅리거가 올림픽 무대를 밟기 어렵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MLB 사무국은 40인 로스터 제외 선수들의 프리미어 12, 올림픽 출전을 허용할 것으



류현진



오승환



추신수

로 알려졌다. 선수들은 구단 승낙을 먼저 받아야 한다.

25인 로스터에 드는 류현진, 오승환, 추신수는 올림픽 출전은 어렵더라도 정규리그가 끝난 뒤에 열리는 프리미어 12에는 구단의 승인을 받으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가장 합류 가능성이 큰 선수는 오승환이다.

올해 콜로라도에서 1년 더 뛰어야 하는 오승환은 이미 국내 복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 등을 봐야 하나 시즌 후엔 자유계약선수(FA)가 되기에 오승환의 대표팀 합류를 막을 걸림돌은 없다. 웨일파잉오퍼를 수락해 다저스에서 1년 더 뛰는 류현진은 상황을 봐야 한다.

다저스는 가을 잔치 단골 출전팀이라 류현진은 10월

에도 계속 공을 던질 수 있다. 시즌 후면 류현진 역시 FA가 되기에 계약 협상 등을 위해 프리미어 12엔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추신수를 비롯해 올해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1년 계약한 강정호, 불박이 빅리거를 노리는 최지민(렘파베이 레이스) 등 타자들의 대표팀 합류도 예상할 수 있다.

추신수는 베네라 빅리거로 입지를 굳힌 테라 소속팀을 잘 설득하면 태극마크를 다시 다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승환은 원정 도박 혐의로 KBO리그의 7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법원의 실형을 받은 강정호의 KBO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들의 대표팀 합류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연합뉴스